

정신질환증세 20대주부 세자녀 강물 던져 실종

93. 8. 26

【부여】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시댁에 와 요양중이던 20대 엄마가 자신의 세 자녀를 강물에 빠뜨려 실종케 한 사실이 밝혀졌다.

25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지석리 금강변 속칭 왕자나루터에서 민병숙(27·여·경기도 성남시 중구 성남동 1305-20)씨가 둘째딸 김유리(4), 셋째딸 한미(3)양과 외아들 석환(1)군을 강물에 던졌다는 것이다.

민씨는 곧바로 인근 부여읍 송간리에 사는 친구 신아무개(24)씨의 집으로 가 이 사실을 말했으며

신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.

민씨는 86년 노동을 하는 김아무개씨와 결혼해 4명의 자녀와 함께 성남에서 생활해오다 지난 2월 아들 석환군을 낳은 뒤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6월 중순께 성남시 인하대부속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.

경찰은 25일 유리양이 신었던 슬리퍼와 아들 석환군을 싸 안았던 포대기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강물이 흙탕물인 데다가 물흐름이 빨라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.